

4 2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과 같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이 + 서술어

① 명들다    ㉠ 이 들다    ② 빛내다    빛을    ③ 힘쓰다    ~~이~~    ~~이전~~    ~~앞으로~~    ~~뒤에~~

④ 그늘지다    주어+술어    ⑤ 남다르다    목적어+술어    부사어+술어

㉠과 ㉡는 주어+술어    ㉢과 ㉣은 목적어+술어    ㉤은 부사어+술어

㉠과 ㉡는 주어+술어    ㉢과 ㉣은 목적어+술어    ㉤은 부사어+술어

㉠과 ㉡는 주어+술어    ㉢과 ㉣은 목적어+술어    ㉤은 부사어+술어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 지문 문제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불기둥의 최대 높이는 10m 정도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를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이를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물관부의 불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때 불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불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물관부에서 물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로 설명할 수 있다.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위로 파스칼(Pa, 1MPa=10<sup>6</sup>Pa)을 사용한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한다.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은 0MPa인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이 첨가되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다. 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 ~ -3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은 -95MPa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기공의 개폐는 잎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

해야 하는 데 있다. 불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

\* 용질: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공의 개폐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
  - ②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 ③ 기공이 열리면 식물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손실된다.
  - ④ 증산 작용으로 물관부 내의 불기둥에 장력이 발생한다.
  - ⑤ 물의 응집력으로 인해 물관부 내의 불기둥이 끊어지지 않는다.
- 기공 열리면 [ 이산화탄소 흡수 물 손실 ]

24. ㉠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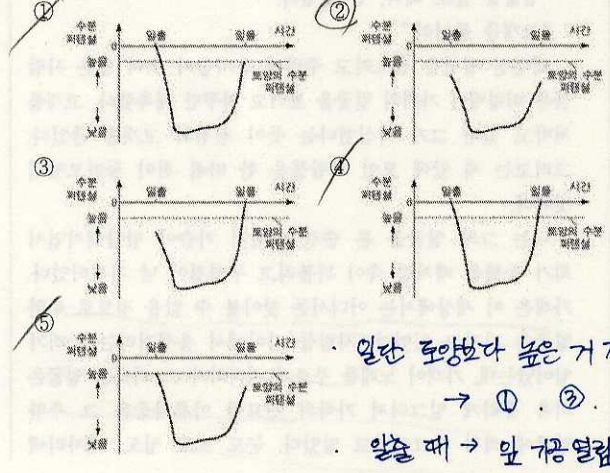
<보 기>

- ㉠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한다.
- ㉡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한다.
- ㉢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한다.
- ㉣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잎의 수분 퍼텐셜이 대기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진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식물이 광합성: 잎의 수분 퍼텐셜보다 대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음 (물이 앞에서 대기로 빠져남)

25.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잎'의 수분 퍼텐셜을 나타낸 그래프로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일출 후보다 높은 거 작기 → ①, ③, ④ X  
 일출 때 → 잎 개폐 열림.  
 (식물 내 물 이동)  
 토양보다 잎의 수분 퍼텐셜이 더 낮음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⑤ X ∴ ②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소설*

(가)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데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토랑물 속으로 찌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얹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땀땀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툇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뜻하게 덤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싣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끼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 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이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률이 끝난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꼭 치막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윈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들을 긂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밑천을 뽑으려고 주변에 웅기증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치막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이 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띄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중오를 불러일으키고, 중오는 곧 심한 역중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평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똬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어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데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메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시인 문체가 주인공에게 등장! - 황석영, 「가객」 -*

2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가): '나' 등장 - 인칭 관찰자 (나): 전지적 작가.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X: 거울과 과거 → 내적해결
- ③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④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나)에서 성격변화
- ⑤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여 들고 있다. → 둘 다 노예들이고 X

28. ㉠과 ㉡의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 수추의 자기 확인을 매개한다. [ ㉠ 내가 못나! ]
- ㉡ 수추가 처한 고난을 상징한다. [ ㉡ 한의 (정착의 계보) ]
- ③ 수추의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 ④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
- ⑤ 수추의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 속의 <예술가·작품·사회·수용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 작품의 수용은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수용자, 작품과 사회,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와 작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 ④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성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쉘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개념 상 주제 중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징한 부분만을 떼어 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런데 문, 창, 거울,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 광고의 경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 프레임 안에 상품을 위치시켜 주목을 받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다음으로,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끈질 심리적 단절로 이어져 구속, 소외, 고립 따위를 환기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정서적 거리감이 ㉠ 조성(造成)되기도 한다. 어떤 영화들은 작중 인물을 문이나 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을 암시하거나 불안감, 소외감 같은 인물의 내면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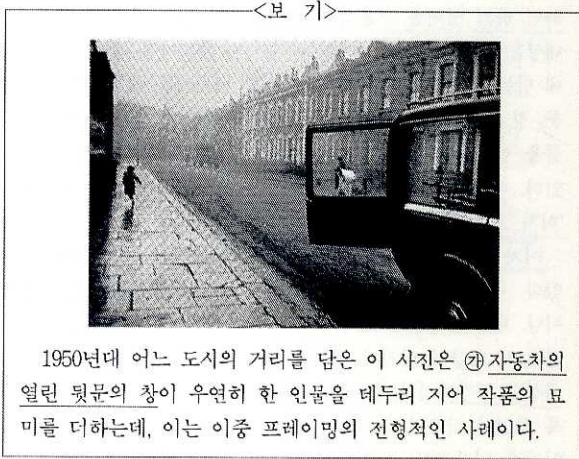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영화는 작중 인물의 현실 이야기와 그의 상상에 따른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온다.

그런데 현대에 이룰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 이차 프레임의 변태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가령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상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 사례도 있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의 의도는 현실을 화면에 담은 촬영 행위에서도 드러난다.
- ②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
- ③ 이차 프레임의 시각적 효과는 심리적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 ④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는 일체감이 형성된다.
- ⑤ 이차 프레임은 액자형 서사 구조의 영화에서 이야기 전환을 알리는 데 쓰이기도 한다.

3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로 인해 화면이 평면적으로 느껴지는군. ✗
- ② ㉠가 없다면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
- ③ ㉠로 인해 차 테두리 외부의 풍경에 시선이 유도되는군. ✗
- ④ ㉠ 안의 인물은 멀리 있어서 ㉠가 없더라도 작품 내 존재감이 비슷하겠군.
- ⑤ ㉠가 행인이 들고 있는 원형의 빈 액자 틀로 바뀌더라도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겠군. ✗

32. ㉠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한 그림에서 화면 안의 직사각형 틀이 인물을 가두고 있는데, 팔과 다리는 틀을 빠져나와 있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
- ②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속한 공간의 문이나 창은 항상 닫혀 있는데, 이는 주인공의 폐쇄적인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 ③ 한 그림에서 문이라는 이차 프레임을 이용해 관객의 시선을 유도한 뒤, 정작 그 안은 실체가 불분명한 물체의 이미지로 처리하여 관객에게 혼란을 준다. ○
- ④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앞집의 반쯤 열린 창틈으로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목격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틈이 한 가정의 행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원래 교과서**
- ⑤ 한 영화는 자동차 여행 장면들에서 이차 프레임인 차창을 안개로 줄곧 뿌옇게 보이게 하여, 외부 풍경을 보여 주며 환경과 인간의 교감을 묘사하는 로드 무비의 관습을 따른다. ○

33.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먼저 보고 고려해보면 더 정확함) [1점]

- ① 결성(結成)되기도                      ② 구성(構成)되기도
- ③ 변성(變成)되기도                      ④ 숙성(熟成)되기도
- ⑤ 형성(形成)되기도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기를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끈이들으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버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용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재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배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뒤편에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남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백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늬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별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불이 붙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 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리이다.”

①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항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반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멸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에게 자 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 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 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궁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백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에게 왈,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 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이 번쩍 여 일광을 비추고 소리 백력같아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플 다 바치고 항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항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궁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득 뇌 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킁킁한지라. 왜왕 이 이때를 당하여 삼혼(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나 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봉명 사진: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진.  
\* 선참후계: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5.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X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옆구리 찔러 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곱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 나머지 사전 찾아주세요.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회고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올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 위원회 회장이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예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예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 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 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과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뎨 눈물이 뿜 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봉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서장이 전화 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오.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님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선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활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쭉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당황)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 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 인터셉트: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3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고 당사자 대신 다른 인물들을 통해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 ②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 ③ 영상을 통해 구경꾼들의 태도를 드러내어 사건의 심각성과 대비하고 있다. ○
- ④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⑤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작위적인 이름으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